

업계소식

건설산업 상생협력 현장 선포식 개최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월 13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한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월 13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 선포식은 고유가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업계가 대·중소 업체간 구분을 떠나 한마음 한 뜻으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이 미래 산

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의 의지를 다지고 상생협력 정착의 계기를 마련코자 개최됐다.

건설업계는 이날 발표된 “건설산업 상생협력현장”에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등 모두가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현장 선포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의 협력과 상생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업계소식



▲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을 비롯한 건설단체장들이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발주자,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과 협력 방안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이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일의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인 모두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건설인이 한마음으로 건설산업 상생협력현장을 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 행사는 매우 뜻 깊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건설업계가 단합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건설산업 선진화는 물론 국가경제의 재도약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상생협력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해서 PQ심사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관 합동으로 “상생협력 실천 규약 표준안”을 제정, 보급하는 등 상생협력이 조속히 정착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연말에 우수 건설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대상’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소식

건설산업에 있어서 효율적 CM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 한국CM협회는 지난 8월 21일 건설산업에 있어서 효율적 CM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CM협회는 지난 8월 21일 건설회관 중 회의실에서 “건설산업에 있어서 효율적 CM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 CM at Risk방식 추진계획 등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생산체

계 다양화 움직임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를 논의해 보고, 선진 건설관리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CM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설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대

업계소식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CM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CM for Fee방식의 용역형 CM업을 신설할 것 △CMr 중심의
 다중계약방식과 패스트-트랙방식 등 발주자에게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권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등 관련 법령의 보완할 것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CM for Fee방식의 용역비를
 선진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주장했다”

한설비건설협회 이사)는 패널로 참석해 “건설생산체
 계가 개편돼 업역제한이 없어지고 종합건설업은 자유
 롭게 전문업계에 진입하여 겸업할 수 있지만 중소 설
 비·전문업계는 수평적 생산체계와 상생협력이라는
 기본취지와 달리 무한경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
 한 “설비·전문업계는 CM 활성화에 찬성하며 CM 방
 식 중 CM for Fee방식을 도입 하는 것이 중소기업 활
 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CM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통
 합하고 CM for Fee방식의 용역형 CM업을 신설할 것
 △CMr 중심의 다중계약방식과 패스트-트랙방식 등
 발주자에게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권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등 관련 법령의 보완할 것 △CM제
 도의 활성화를 위해 CM for Fee방식의 용역비를 선
 진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예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최근 건설시장
 의 환경변화와 CM’을 주제로 △CM관련 제도 현황
 △국내 CM시장 동향 △CM관련 정부정책의 방향 △
 건설생산체계의 변화 △CM제도 및 발주방식의 정착
 과 CM시장의 확대 추세 △CM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의 방향제시 △기존 건설생산체계 변화 △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압박 증대와 이에 대한 CM 역할
 의 기대 △Global Standard와 Best Value 개념에
 대한 필요성 대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CM 발전의
 전제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